

PEOPLE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김성재 조선대병원 교수 ‘알기 쉬운 수면 이야기’ 출간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김성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수면’을 쉽고 과학적으로 풀어낸 ‘알기 쉬운 수면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에서는 수면과학의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생체리듬 장애와 함께 수면과 정신건강의 관계 등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수면 지식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수면 솔루션을 제시한다.

김성재 교수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수면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에 대해 고충받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의 원리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FTA통상진흥센터 트럼프2기 관세정책 대응 교육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최근 강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과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무공사 관세사무소의 정재환 관세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 및 수출 유관기관 담당자 20명이 참석했다.

강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정책 변화 및 환율 변동성과 관세정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율 관세정책과 무역 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환율 변동이 국제 무역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 환율과 무역 정책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제시했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중 기자 sdw0918@gwangnam.co.kr



완도경찰 민경 합동 해빙기 위험구역 점검

완도경찰서는 최근 해빙기를 맞아 완도군, 소방서 등과 함께 지역 내 위험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겨울 동안 약해진 지반으로 산사태, 낙석 등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성일 완도경찰서장은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경이 합동으로 위험이 예측되는 장소를 점검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작은 동전 하나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희망 될 것”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 동전 모으기 계수행사 개최 시·군 소외계층 도움 손길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는 11일 전남도새마을회 회관에서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동전 모으기 계수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카드 사용 증가로 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는 동전을 회수·유통시켜 동전 제작비(국고)를 절감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등 새마을사업비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양윤호 새마을회 중앙협의회장,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 박창덕 전남도협의회장을 비롯한 22개 시·군협의회장과 부녀회 임원,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동전 분류 및 계수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20개 시·군 150개 읍·면·동에서 총 6500여만원의 동전을 모았다.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회장 박창덕)는 11일 도새마을회관에서 양윤호 새마을회 중앙협의회장,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22개 시·군협의회장과 부녀회 임원,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전 분류 및 계수 작업을 실시했다.

분류 및 계수 작업을 거쳐 모아진 금액은 각 시·군으로 전달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될 예정이다.

박창덕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장은 “소

는 소중한 희망이 될 것이며, 작은 정성이 모여 중히 모인 따뜻한 마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작은 동전 하나가 누군가에게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산림연-목포과학대, 산림·조경 인력 양성 맞손

기능사 교육과정 공동 운영·창업 지원 등 협력키로

전남산림연구원(원장 오득실)은 11일 산림·조경·정원관리·식품가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목포과학대학교(총장 이호균)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목포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산림조경학과, 건설융합과, 식품영양학과 교수·연구진과 전남 서부권 임업 후계자 연합회 관계자 등이 함께 해 관련 교육 협력과 실습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산림기능사, 조경관리사, 정원관리사, 식품가공기능사, 건설기계운전(굴착기·지게차)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실습장과 시험장 사용 △귀산촌·임업 창업 지원 (귀산촌·임업 창업에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제공)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며, 임업·산림·조경·건설기계운전·식품가공 분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업·산림·조경·식품가공·건설기계운전 교육을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농번기를 고려해 주말·야간 교육과 농한기 집중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협력해 실습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은 “이론과 실습이 결합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임업·조경·산림·건설기계·식품가공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산학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임업 후계자와



광주시북구체육회는 지난해에 이어 열역 부족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

광주시북구체육회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동참

광주시북구체육회는 지난해에 이어 열역 부족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헌혈 캠페인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정희환 회장을 비롯한 북구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원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

했다. 정희환 회장(리치씨엔에스 대표이사)은 “헌혈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산림연구원(원장 오득실)은 11일 산림·조경·정원관리·식품가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목포과학대학교(총장 이호균)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조경·식품가공·건설기계 분야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체계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림·조경·식품가공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산림학교 운영 조례’

를 바탕으로 산림교육 및 산림치유 등 숲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다. 올해도 임업후계자 양성고보수교육, 산림바셋·산악초·양묘·조경수·목공예 체험, 임업직벌채 임업인 의무교육 등 10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혁신도시 정책연구원 등 정주여건 개선 양해각서 체결

혁신도시 정책연구원(원장 이민원)과 전국 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승태)는 지난 10일 빛가람 혁신도시에 소재한 혁신도시 정책 연구원에서 혁신도시와 지역의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구원이 지난 2월에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협약으로, 연구원이 혁신도시와 관련한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등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전혁노협과 협약을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충북혁신도시에서 개최한 전혁노협 회의에 참석해 연구원의 설립 취지 및 필요성,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연구원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혁신도시 관련 조

사를 및 연구, 이전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주 여건 및 노동 환경 개선, 혁신도시 관련 학술 연구 행사 개최, 혁신도시 입주 지자체 대상 상생 지수 평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혁노협과 함께 혁신도시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혁신도시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동구노인종합복지관 2025년도 경로대학 1학기 개강 11일 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화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로대학 1학기 개강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 박광성 학장, 유옥자 회장, 유옥자 회장, 유옥자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경로대학은 12월까지 총 800여명이 참여한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광주시지회, 정성빛은 떡 전달식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1일 서구청 구청장실에서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광주시지회(지회장 박흥구)로부터 천원급 신규 개소 기념으로 정성빛은 떡 1만명분을 전달 받았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